6강 무의식의 초월적 종합 2

(1교시)

◆ 언어적 표상과 무의미한 기표연쇄

※ 학습목표
언어적 표상과 무의미한 기표연쇄를 이해한다

▲ 특정한 종합의 사용 - 남근 부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우리는 특정한 종합의 사용을 발견합니다. 남자의 계열과 여자의 계열이 있지만 두 계열은 공히 '남근 부재', 즉 거세라는 공통항을 나눠 가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성을 기반으로 부분들을 배분하는 것이 이접적 종합이라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거세라는 공통성을 남자의 계열(남근 상실의 공포)과 여자의 계열(남근 선망)로 분배하는 이접적 종합입니다. 오이디푸스적 종합에 따르면, 인간의 성은 거세 위에 세워집니다. 인간의 성에서 거세는 필연적입니다. 거세되지 않은 존재는 남근을 소유한 아버지 한 명뿐인데, 그 아버지는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구성하기 위해 초월적 가상으로 요청된 존재입니다.
남근을 소유한 아버지는 어머니, 남자아이, 여자아이, 심지어 실재 아버지 자신의 '믿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 아버지-남근의 믿음이 거세 공포의 계열과 남근 선망의 계열을 배타택일적으로 조직하고, 믿는 자마다 소년의 자리와 소녀의 자리로 나눠 앉게 만듭니다. 이 오이디푸스 교회에 들어오려면 '성은 오직 하나다' '남근만이 唯一性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근친상간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남근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남근이 없는 지옥의 공포와 남근이 있는 천국의 소망에 따라 두 종류의 성으로 나눠지게 되었으며,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남근을 경배할 때 천국의 문은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동성애자들, 분열증자들은 아버지의 법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다만 믿기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불신의 말속에 깊은 신앙의 불씨를 담고 있는 신경증자들을 향해 전도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 정신분석과 언어적 표상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적 신앙의 교리로 전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경증자의 무의식적 욕망은 특정한 표상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렇게 특정한 표상에 얽매인 욕망을 영토화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하는 생산 자체는 흐름의 생산이기 때문에 한군데 정착되는 법이 없습니다. 욕망생산의 본성은 탈-영토화하는 흐름의 생산입니다. 신경증자의 무의식은 부재하는 표상, 결여된 표상에 준거하여 현존하는 표상들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자의 무의식은 처음부터 형이상학적이며 종교적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어서가 아니라 부재자(초월자)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표상에서 보이지 않는 표상을 추론하고 그것을 실체화시킬 때 우리는 형이상학자가 됩니다. 정신분석이 리비도의 기계학에서 무의식의 해석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말의 분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표상은 언어적 표상입니다. 언어적 표상이 다른

www.artnstudy.com

기호 표상, 가령 들판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이나 음악의 리듬, 회화의 색채, 동작의 궤적을 표시한 다이어그램 등과 다른 점은 전달하려는 '의도'나 표현하려는 '의미'가 명확히 분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적 표상이 표상표현(기호표현)과 표상내용(기호의미)으로의 이항 분절이 명확하다는 점은 그만큼 둘의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드러난 기표 속에 숨어 있는 기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신분석은 신경증자의 말은 어떤 의미나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이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이유는 언어를 해석의 수단으로 삼고 해석해야할 표상을 언어적 표상으로 설정했기 때입니다. 즉, 정신분석은 숨어 있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는 형이상학적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기표와 기의

우리는 보통 언어의 표상표현과 표상내용을 구분하고 이 둘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소쉬르라고 생각합니다. 소쉬르는『일반언어학 강의』(1916)에서 전자를 청각영상으로 된 기호표현(signifiant), 후자를 개념영상으로 된 기호의미(signifi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프로이트는「농담과 무의식의 관계」(1905)에서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경증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면서 언어기호의 청각표상이 의미와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고 활동이 병적인 상태에서는…단어의 의미 대신에 청각적인 표상이 전면에 부각되며, 그런 환자는 언어표상의 '내적' 연상 대신에 '외적' 연상에 따라 발언을 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직 단어를 사물처럼 취급하는데 익숙한 어린이들에게서도 단어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면 거기에서 같은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1)]
프로이트가 언어표상에서 '의미' 외부에 '청각영상'의 측면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둘의 관계는 외적(자의적)이라는 것, 의미(기의)와 청각영상(기표) 사이의 외적(자의적) 관계는 발화하는 주체 외부의 어떤 무의식적 체계(랑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동시대 소쉬르(『일반언어학 강의』는 1916년에 출판되었지만 소쉬르의 강의는 1900년도에 이뤄졌다)와 동일한 언어학적 에피스테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 프로이트와 소쉬르의 언어기호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에서 언어기호는 "사물들을 판명하게 해주며 사물들을 나름대로의 동일성 속에서 유지해 주고 사물들을 분해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는 것"(『말과 사물』, 92)입니다. 이성은 언어기호를 수단으로 자연의 표상적 질서를 분절(분석)하는 동시에 언어의 분절체계가 자연의 분절체계와 일치하도록 만듭니다. 19세기 근대의 에피스테메에서 언어는 사물의 질서를 투명하게 표상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 기능(비교문법)과 신체(음성학)와 유한한 역사(어족연구)를 가진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소쉬르는 이런 실증주의적 언어학의 장이 가능한 조건 자체를 물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인간학의 공통된 관심사, 즉 인간적 존재의 선험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일반언어학 강의』는 인간의 언어적 표상활동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무의식적) 조건에 대한 탐구입니다. 소쉬르가 사회적 의식의 장에서 언어기호의 성립조건을 탐구했다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욕망

---

1) 프로이트, 임인주 역,『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1997, 160쪽.

www.artnstudy.com

의 장에서 언어기호의 성립조건을 탐구했습니다. 둘은 공히 언어기호의 자의성을 발견했으며 개인의 발화를 넘어선 언어체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 기표연쇄와 의미

언어기호의 청각적 표상과 의미 사이의 분리 가능성은 『꿈의 해석』(1900)에서 꿈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수면 중에도 무의식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단어는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와 결합하지 않고 '부분'들로 쪼개집니다. 가령 어떤 청년의 꿈에서 나온 "튜텔라인tutelrein"[2)]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단어를 tutel과 rein이라는 부분들의 합성물(complex)로 봅니다. 꿈 표상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표상을 분리불가능한(individual) '전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꿈을 하나의 전체물로 파악하고 이것을 비슷한 내용으로 바꾸어 보다 쉽게 만드는"(『꿈의 해석』, 94) 고대의 상징적 해몽법과 달리 프로이트의 꿈 해석은 꿈의 표상을 부분표상들의 집합으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프로이트는 꿈 표상의 이런 '부분' 집합적 특성을 그림 수수께끼에 비교합니다. "여기에 한 장의 그림으로 된 수수께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집이 한 채 그려져 있고, 그 지붕 위에 보트가 한 척 올라 있다. 그리고 글씨가 씌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 달리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없고 부호만 적혀 있다."(『꿈의 해석』, 256) 이 그림은 하나의 전체(individual)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각각의 부분표상들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이질적인 연쇄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표상들이 동일한 종이 위에 모인 것뿐입니다. 이처럼 꿈의 표상은 이질적인 사고연쇄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표상들이 수면 중에 형성된 <기관 없는 신체> 위에 등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표상들의 비전체적 종합을 푸코의 『말과 사물』 첫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르헤스의 논문 「존 윌킨스의 분석적 언어」에서 인용한 중국의 백과사전이 소개됩니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a)황제에 속하는 동물 b)향료로 처리되어 방부 보존된 동물 c)사육동물 d)젖을 빠는 돼지 e)인어 f)전설상의 동물 g)주인 없는 개 h)이 분류에 포함된 동물 I)광폭한 동물 j)셀 수 없는 동물 k)낙타털과 같이 미세한 모필로 그릴 수 있는 동물 l)기타 m)물 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 n)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이 분류의 이접적 종합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종합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항목들은 하나의 언표적 장 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꿈 표상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계열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표상들이 기관없는 신체의 표면 위에 내포적(inclusive)으로 이접되어 있는 것입니다.

▲ 단일한 의미를 갖는 tutelrein이라는 무의미한 기표연쇄

그런데, 프로이트는 꿈 표상의 이접적 종합 너머에 있는 잠재적 의미(사고)를 찾아내기 위해 그 부분표상들이 원래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인지 추적합니다. 앞에서 든 tutelrein의 경우 tutel은 Curatel(보호의 의미이자 속어로는 유방을 가리킴)을 매개로 '유방'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rein(깨끗하다는 뜻의 접미사)은 Zimmetelegraph(실내전화기)를 매개로 Zimmerrein(실내정돈)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표상에서 그것이 원래 속해 있던 전체표상을 추출함으로써 무의미하던 꿈 표상에

---

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기태 역, 『꿈의 해석』, 선영사, 1995, 273쪽.

www.artnstudy.com

의미가 부여됩니다. '실내전화기'와 '실내정돈'이라는 잠재적 단어는 꿈꾼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잠을 자다가 물 컵을 엎질러 '실내전화기'의 줄을 '적시는' 바람에 전화기가 계속 울려 아버지가 잠을 깬 사건과 연관됩니다. '빨리 물을 닦았어야 하는데…' 그럼 왜 '실내정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방정돈'을 의미할 tutelrein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전화가 단속적으로 울리는 것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엄마의 젖가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빠 몰래 엄마의 젖을 계속 빨고 싶은데 그만 아빠의 잠을 깨웠어 빨리 깨끗이 치워야지…' 이렇게 해서 tutelrein이라는 무의미한 기표연쇄는 단일한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압축과 전치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표상의 교체과정을 '꿈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꿈 작업에는 크게 압축(condensation)과 전치(displacement)가 있습니다. 압축은 여러 개의 표상들이 하나의 대표-표상으로 바뀌지는 것이고, 전치란 어떤 표상이 강세의 이동 때문에 그와 인접해 있는 다른 표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표상의 대체와 이동을 리비도의 이동과 연관시켰습니다. 여러 개의 표상들을 대리 표상하고 있는 "이 요소는 꿈 해석에서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많은 꿈의 요소가 교차되는 접점을 나타내는 것 같다"(『꿈의 해석』, 261)고 할 때 서로 다른 연쇄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표상들을 '교차'시키는 것은 리비도의 흐름입니다. 리비도의 흐름이 부분표상들을 이탈시키고 교차시키는 동력입니다.

전치란 어떤 표상에 투여된 리비도의 강도가 다른 표상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꿈 형성에 있어서 심적 강도의 전이 및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꿈 내용과 사고의 표면적 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꿈의 해석』, 282) 것입니다. 무의식의 '작업'이란 이렇게 표상들을 이동시키고 교차시키는 리비도의 강도적 생산 작업입니다.

www.artnstudy.com

6강 무의식의 초월적 종합 2

(2교시)

◆ 은유와 정신분석학의 해석 작업

※ 학습목표
은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신분석학의 해석 작업을 살펴본다

▲ 표상 전치의 목적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생산 '작업'을 어떤 숨어 있는 '동기'(의미)를 은폐하기 위한 분장 '작업'으로 바꿔 설명합니다. 그래서 "압축작업이 목표하는 것은 지각조직을 향한 발현을 위해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다"(『꿈의 해석』, 509)라며 리비도의 교차를 '표현' 목적을 위한 수단(강도확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강도의 이동에 의해 꿈 표상은 다면적인("multiple")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다면적 규정은 언제나 반드시 꿈 형성의 최우선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심적 힘의 부차적 산물"(『꿈의 해석』, 282)이라며 숨은 동기를 은폐하는 목적을 최상위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표상의 전치는 리비도적 강도의 이동 때문이 아니라 애초의 표상을 숨기려는 '목적' 때문에 일어난다는 목적론적 해석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 은유와 환유
라캉은 이런 해석작업이 언어활동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어활동이란 그 자체로 타인의 입에서 나온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작업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말에서 의미(의도)를 찾아내고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해석될지 고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 무의식의 분석에서 핵심으로 제기된 것은 인간이 '말하는 존재'로 규정된 까닭입니다.
라깡은 꿈 사고의 두 가지 압축과 전치의 작업이 깨어 있는 동안의 언어활동에서도 항상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압축은 기표들의 포개짐(surimposition)입니다.[3] 즉, 어떤 기표 위에 다른 기표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적 은유처럼 기표의 포개짐이 일어나는 순간은 새로운 의미가 섬광처럼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전치는 은행 구좌의 이체(virement)처럼 의미작용의 벡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쇄 선상에 있는 기표가 인접해 있는 다른 기표로 옮겨지는 환유작용('미 대통령은 백악관에 산다'는 연쇄 선상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바뀌지는 것처럼)과 유사합니다. 이 은유작용과 환유작용은 비유적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 언어활동에서의 단어의 선택과 단어의 결합에서도 일어납니다. 은유란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환유란 선택된 단어들을 선형적으로 결합시켜 문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 기표 위에 포개지는 은유 - '남근기표'

3) 권택영 엮음,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무의식에 있어 문자가 갖는 권위」, 문예출판사, 1995, 72쪽.

www.artnstudy.com

라캉은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기표들이 선형적으로 연쇄를 이루는 환유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연쇄가 종결되는 순간, 소급적으로, 늘어선 기표들 위에 새로운 기표가 포개지는 은유작용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에 있어 문자가 갖는 권위」, 77) 라캉은 일련의 기표들 위에 포개지는 이 은유의 기표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 기표를 '남근기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인기표'라고 부르기도 하며 '하나-기표'(S1)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정신병자에게 배제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니의 욕망 위에 포개진 주인 기표, 혹은 사물 자체를 대체한 은유 기표입니다. 나머지 환유의 연쇄 속에 있는 기표들은 이 주인기표의 파생-기표(S2)로 재규정됩니다. 환유의 연쇄 속에서 은유-기표를 은폐하기 위해 등장한 대리-표상들로서, 결국은 거세(결여)를 표시하는 남근-기표로 소급될 운명에 처해지는 것들입니다.

▲ 정신분석의 해석 작업

정신분석이 하는 일은 신경증자에게 이 은유의 기표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증상에 담긴 몰랐던 '의미'가 섬광처럼 출현하게 해 주는 것이죠. 결국 그런 해석 작업은 어머니의 욕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체하게 하는 작업이자, 부정하고 싶은 거세(남근 부재)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었다'라는 통접적 종합을 사용하여 거세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 주체의 욕망을 포기시키는 작업이 정신분석의 해석 작업입니다.

▲ 누빔점의 기만

라캉은 은유 기표가 환유적 기표 연쇄를 종결시키고 주체에게 의미를 주는 해석 작업을 소파의 불룩한 풀솜을 단추로 고정시키는 작업에 비유합니다. 분석가가 할 일은 이 누빔점(point de capiton 소파고정점)으로 풀솜처럼 부풀면서 떠돌아다니는 무의식의 기표연쇄를 하나의 의미(무의식의 주체)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누빔점은 분열증자나 도착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신경증자에게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증자는 자기 증상(강박적 행동, 히스테리성 마비, 말 공포증, 우울증)의 수수께끼(의미)를 풀기 위해 분석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온 오이디푸스에게 한 것처럼 '너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잤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신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저항하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길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합니다.

이처럼 신탁을 듣고 피하려는 것이 신탁의 예언을 실현한 원인이 되는 것처럼(신탁을 안 들었다면 신탁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석가의 말이 신경증자의 무의식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신경증자가 분석가를 찾아갔기 때문이고, 분석가의 말을 듣고 그것에 저항했기 때문이며, 그 저항의 몸짓을 통해 분석가의 말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아니라고? 바로 그게 너의 유죄를 증명하는 거지!')

▲ 발화수행적 차원의 진실

이처럼 분석가는 신경증자의 무의식적 기표를 누벼서 '의미'를 주지만 그 의미의 진실(Truth)은 발화내용적 차원의 진실이 아니라 발화수행적 차원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www.artnstudy.com

것이 그것이다'는 통접적 종합은 종합의 '내용'이 아니라 종합의 '사용'으로 인해 '진실'을 증명합니다. 타자의 말에 숨은 의미(진실: '무슨 뜻일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에 얽매인 신경증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주는 행위'입니다. 분석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자신을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 믿는 환자에게 진실한 의미를 주는 제스처입니다. 이러면 환자는 분석가에 대한 전이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석가는 한 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기표를 줍니다. 환자는 처음부터 쓸데없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의문의 '쓸 데 없음'을 담고 있는 기표로 그들의 기표여행을 중지시킵니다. '엄마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에 '남근!'이라고 대답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묻게 합니다. 타자의 욕망에 대한 의문을 주체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질문으로 뒤집는 '반사!' 거울이 남근기표의 기능입니다. 라캉이 주인-기표를 '텅빈 기표', '기의 없는 기표'라고 부르거나, 은유-기표는 '무無'(부재, 결여)를 대체하는 기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억압의 욕망

타자의 말에 숨어 있는 의미와 의도(진실)에 얽매여 있는 신경증자에게는 사실 아무 답이나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주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독일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걸까? 왜 독일사회는 빈곤과 적대와 타락으로 치닫는 걸까? 라는 대중들의 신경증적 의문에 '유대인!'[4]이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헛된 의미 탐사를 중지시키고 전쟁수행에 돌입하게 했습니다. 신경증에 걸린 독일 대중들이 원한 것은 독일사회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요청했고 주인의 권위에 예속되기를, 자신을 억압해주기를, 즉 억압을 욕망 했습니다.

---

4) 내가 묻는다.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답한다. "유대인의 피와 다른 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당황하게 한다. 당신은 망설이고 어리둥절해진다.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묻는다. "무엇이 민족인가" "민족? 아, 그건 간단해, 독일 민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도 있다." "유대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글세, 유대인은 검은 머리털에 긴 매부리코와 예민한 눈을 갖고 있다. 유대인들은 탐욕스럽고 자본주의적이다." "유대인과 함께 있는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인이나 이탈리아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혈통의 용태는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유대인은 프랑스인이나 이탈리아인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독일계 유대인을 본 적이 있는가?" "물론, 그들은 독일인들처럼 보인다." "그러면 독일인은 어떤 사람인가?" "독일인은 북방 아리아 인종이다." "인도계 아리아인?" "그렇다." "그들은 북방인종인가?" "아니다." "그들은 금발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독일인이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를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있다. 기독교와 회교도들이 있는 것처럼 확실히 유대교도들은 있다. 난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네델란드 사림이었는가?" "아니다." "루즈벨트를 네델란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모른다." 라이히, 『작은 사람들아 들어라』, 곽진희 역, 일월서각, 1991. pp.45-46. 이어서 라이히는 "나는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잡종이다. 나는 모든 계급과 인종과 국가의 정신적, 육체적 결과임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당신처럼 '순수한 인종'도 아니고 당신처럼 '순수계급'에 속하지도 않고, 모든 국가의 인종과 계급의 하찮은 파시스트인 당신처럼 배타적이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당신이 팔레스타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 기술자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공통점이 없듯이, 유대인 파시스트들과도 전혀 공통점이 없다. 하찮은 유대인이여, 어째서 당신은 오직 셈족에게만 돌아가고 원형질로는 돌아가지 않는가? 나에게는 삶이 랍비의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혈장의 수축에서 시작된다."

www.artnstudy.com